

팬덤활동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친구관계의 매개효과

안지영* · 김지신** · 김가현***

본 연구는 팬덤활동과 청소년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러한 구조적 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6차년도 자료(2023년)에서 수집된 중학교 3학년 902명이다. 자료분석은 SPSS 26.0과 AMO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구조경로의 성차를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팬덤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 직접경로는 부적인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팬덤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는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팬덤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 직접경로의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팬덤활동에서 친구관계로 이어지는 경로와 친구관계에서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경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는 여학생 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팬덤활동과 삶의 만족도를 이해할 때 팬덤활동의 참여 빈도뿐 아니라 친구관계를 통한 관계적 경로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팬덤활동, 삶의 만족도, 친구관계, 매개효과

논문 투고일 : 2026. 07. 29.

최종심사일 : 2026. 09. 21.

게재확정일 : 2026. 09. 22.

* 고려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 덕성여자대학교 상담산업대학원 겸임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학과 석사

Corresponding author : Kim, Jishin, Duksung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and Industry, Seoul 03131, Korea. E-mail: career019@hanmail.net

I. 서론

한국의 청소년들은 입시 중심의 교육환경과 높은 학업 경쟁 속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감, 무기력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OECD PISA 2022에 따르면 한국의 만 15세 학생 중 22%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OECD 평균 18%보다 높은 수준이다(OECD, 2023). 또한 국내에서도 아동 행복지수 조사(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24) 결과에 의하면, 전년도에 비해 수면 부족, 공부 비율의 증가, 부정적 정서의 증가 및 긍정적 정서의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시기로서, 신체적 성장과 인지적인 발달 및 심리적인 변화를 빠른 속도로 겪어가는 불안정한 상태라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스럽게 지각하는가는 청소년기뿐 아니라 이후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서선숙·백진아, 2020).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해 내리는 인지적 평가로서, 주관적 안녕감의 주요 구성요소로 이해된다(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며, 삶의 만족도는 그중 개인의 삶 전체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해당한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이러한 삶의 만족도는 자아수용,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등 심리적 기능과 자기실현적 측면을 강조하는 심리적 안녕감과 구분된다(Ryff, 1989). 본 연구에서는 팬덤활동과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삶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삶의 만족도를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생활조건만으로 설명되기보다는 또래와의 관계, 소속감, 정서적 지지, 상호작용 경험 등 일상에서 축적되는 관계적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등 개인 심리 요인(곽자경·전효정, 2025; 김다희·최진아, 2017), 부모양육 요인(문민경, 2025), 학교생활적응, 친구관계 등 학교생활 요인(손수경·이현정·홍세희, 2017; 이은지·유지혜, 2020) 및 사회환경 요인(박지현·김대원, 2019)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는 개인적·사회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관련되며,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보호적 역할을 하

는 심리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뿐 아니라 가정, 학교, 또래관계 등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관련되며, 특히 청소년기는 일상적 활동 경험이 주관적 삶의 평가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다차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할 때에는 학업 부담이나 개인 심리요인뿐 아니라, 일상에서 참여하는 문화활동과 또래관계 경험의 역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영향요인이 보고되어 왔으나, 팬덤활동과 친구관계를 함께 고려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특히 팬덤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 직접적 관련성과 친구관계를 통한 간접적 관련성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팬덤활동과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가지는지를 규명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친구관계의 매개효과와 성차를 검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팬덤활동과 삶의 만족도

팬덤활동은 청소년의 중요한 문화적 경험으로, 또래와의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는 활동이자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다. 팬덤(fandom)이란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즉 팬 집단이나 문화를 의미하며(안은미·김소희·전선율·전성미·정익중, 2012), 팬덤활동을 통해 청소년은 사회적 연결감과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rizabal & Yabut, 2025). 이는 청소년 팬덤활동이 개인적 취향이나 여가활동에 한정되지 않고, 또래 및 온라인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관계 맥락에 따라 다양한 기능과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활동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팬덤 관련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고 대상이 청소년층에서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다(강지현·노혜경, 2019). 지금까지 팬덤활동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부정

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강지우·하정희, 2025; 고은경·전효정·엄성혜·이난희·김동진, 2019). 예를 들어, 팬덤활동은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나재은, 2017), 중학생의 학교적응(안은미 외, 2012) 및 학업태도(이지수·안현선, 2021)에 부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팬덤활동의 긍정적인 측면도 보고되었다. 팬덤활동은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 의미와 문화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문화적 공동체로 재개념화되었으며(김용석, 2011), 청소년은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여가 활용 능력을 기르며 새로운 자아를 탐색하는 긍정적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고운·김정운·박정열, 2009). 또한 팬덤활동은 집단 정체감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조안나·이은경·장미경, 2016; Arizabal & Yabut, 2025), 학교생활 적응을 높이며(이정민·정혜원, 2018), 행복과 열정 등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부경희·이루리, 2023; 정현주, 2017).

한편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 팬덤활동의 관계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일관된 방향으로 단정짓기 어려우며, 두 변인 간 관계는 부적 관계, 유의하지 않은 관계 및 정적 관계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팬덤활동이 삶의 만족도와 부정적인 관련성을 보인다고 보고된 연구(나재은, 2017; 현지현, 2024) 중에서 특히 현지현(2024)은 팬덤활동이 활발할수록 고등학생의 학업성취 만족도가 낮아지고, 이러한 학업성취 만족도의 저하가 삶의 만족도 감소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반면 팬덤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김다희·최진아, 2017; 방성아, 2019), 팬덤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보고도 제시되고 있다(한주상·신동윤, 2025). 이처럼 팬덤활동과 청소년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것은 팬덤활동의 효과가 단순히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만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팬덤활동은 활동 빈도나 몰입 수준에 따라 학업, 수면 등 일상생활에서의 과업과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또래와의 관심사 공유, 정서적 위안, 스트레스 해소, 소속감 및 몰입 경험을 제공할 때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팬덤활동과 삶의 만족도 관계는 팬덤활동 참여의 빈도라는 양적 수준뿐 아니라 활동의 성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며, 팬덤활동이 삶의 만족도와 어떠한 방향으로 관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더해, 그 관계가 친구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 맥락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팬덤활동, 친구관계 및 삶의 만족도 간 관계

친구관계는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상호작용하는 주요 관계적 환경으로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삶의 만족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논의되어 왔다(곽자경·전효정, 2025). 또래관계의 질은 친구와의 신뢰, 친밀감, 상호지지, 의사소통, 갈등 수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과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친구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와 수용을 경험한 청소년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반면, 또래관계에서 배제되거나 갈등을 경험한 청소년은 우울, 불안, 외로움 및 학교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병선·배성우·박경진·서미경·김혜지, 2017). 또한 친구관계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친구관계가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김정연·정현주, 2008), 청소년기 또래관계의 질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김다희·최진아, 2017; 한주상·신동윤, 2025). 이러한 결과들은 친구와의 신뢰와 친밀감, 정서적 지지로 대표되는 긍정적인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주요한 사회적 자원임을 보여준다(Berndt, 2002).

한편 팬덤활동은 대중문화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바탕으로 친구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대중스타는 동경을 넘어 동일시의 대상이자 정체감 형성의 준거 체계가 되며, 내면적 욕구와 현실에 대한 긴장을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통로로 기능하기도 한다(김인경·곽금주·양진영, 1998).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대중스타를 따르면서 또래집단과 동질성을 갖고 대인관계를 확장시키며(오운선·황인숙, 2016), 이러한 팬덤활동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최미원·조현희·김영아, 2016). 나아가 좋아하는 스타에 대한 관심과 팬덤활동은 또래관계 형성의 매개로 작용하여, 청소년들이 동일한 대상을 선호한다는 공통적인 기반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된다(안은미·김지신·전선율·정익중, 2013).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에서 친구관계와 팬덤활동 간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강지우·하정희, 2025; 김유현·김유미, 2024). 예를 들어 친구관계와 팬덤활동 간의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안은미 외, 2013; 인효연·박현정, 2024)이 있는 반면, 친구관계와 팬덤활동 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도 보고되었다(김다희·최진아, 2017). 이처럼 팬덤활동은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두 변인 간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다.

기존 연구에서도 팬덤활동, 친구관계 및 삶의 만족도 간 관련성이 부분적으로 검토되었으

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먼저 김다희·최진아(2017)는 팬덤활동과 또래관계의 질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으나, 팬덤활동이 친구관계를 거쳐 삶의 만족도와 연결되는 간접경로는 다루지 않았다. 또한 한주상·신동윤(2025)은 팬덤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나, 팬덤은 특정 대상에 대한 정서적 헌신과 팬으로서의 정체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팬덤활동과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는 팬덤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가 부적, 정적 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다양하게 보고되었으나, 팬덤활동의 직접적 관련성과 친구관계를 통한 간접적 관련성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팬덤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 직접경로와 친구관계를 통한 간접경로를 하나의 구조모형에서 검증하고, 이러한 구조적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3. 팬덤활동과 관련 변인의 성차

한편 팬덤활동, 친구관계 및 삶의 만족도 간 구조적 관계의 성차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제한적이나,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을 중심으로 성차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먼저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여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김다희·최진아, 2017). 이는 일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심리적으로 예민하여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여학생의 우울감이 남학생에 비하여 높다는 연구결과(공정석, 2011; 우채영·박아청·정현희, 2010)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또한 팬덤활동의 참여 수준과 활동 유형에서 성차가 존재함이 보고되고 있으며(강지현·노혜경, 2019; 오현정·장유나·홍세희, 2020),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팬덤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특히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활동에 적극적인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김경미, 2020; 김민주·이은경, 2025; 안은미 외, 2013; 오현정 외, 2020).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팬덤활동 참여 빈도의 차이로만 이해하기보다, 팬덤활동을 통해 관심사와 감정을 공유하고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의 차이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성차연구는 주로 남녀 간 팬덤활동 참여 수준이나 활동유형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어왔으나, 참여 수준의 차이만으로는 팬덤활동이 친구관계 및 삶의 만족도와 연결되는 과정이 성별에 따라 동일한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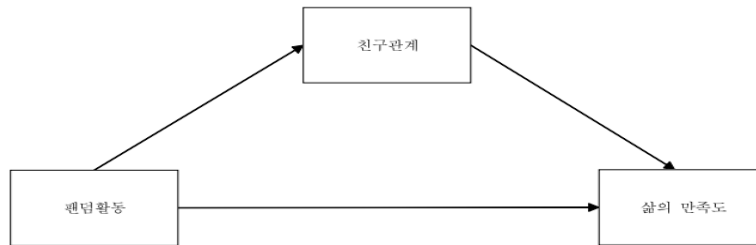
검증하고자 한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참조).

연구문제 1. 팬덤활동과 청소년 삶의 만족도 간 직접적 관련성은 유의한가?

연구문제 2. 팬덤활동과 청소년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는 유의한가?

연구문제 3. 팬덤활동, 친구관계 및 삶의 만족도 간 구조적 관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진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에서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6차년도(2023년) 자료를 기반으로 대상을 선정하였다. 6차년도에 해당하는 중학교 3학년 패널은 총 2,242명이며, KCYPS 2018에서 팬덤활동 빈도 문항은 “특별히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있습니까?”라는 선별문항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학생에게만 제시되어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팬덤활동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응답자 902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902)

변수	구분	n	%
성별	남	394	43.7
	여	508	56.3
학교 소재지	서울	166	18.4
	경기	246	27.3
	부산	56	6.2
	대구	43	4.8
	강원	41	4.5
	기타	350	38.8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는 팬덤활동, 친구관계, 삶의 만족도 변인에 대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척도의 항목은 청소년 본인이 응답한 내용으로 수집되었다.

1) 팬덤활동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에서 팬덤활동 변인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의 기존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측정하였다. 팬덤활동은 “특별히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있습니까?”라는 선별문항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제시되었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팬덤활동 관련 문항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방식과 동일한 기준이다(김다희·최진아, 2017; 김민주·이은경, 2025; 나재은, 2017; 안은미 외, 2013; 현지현, 2024). 팬덤활동 참여에 대한 문항은 9개로,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와 관련하여 팬덤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를 묻는 빈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문항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팬덤활동 수준을 조작화하였다. 팬덤활동 문항에는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항목록을 구성하면서 두

활동의 영역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팬덤활동으로는 ‘팬미팅(싸인회) 참석하기’, ‘팬클럽이나 팬카페 활동하기’, ‘SNS, 블로그, 트위터, 기사 등에 댓글 달기’, ‘사진과 동영상 감상 및 업로드하기’, ‘굿즈 만들기 또는 구입하기’, ‘콘서트나 경기 관람하기’ 등이 포함된다. 응답은 Likert 방식으로 ‘전혀 없다’에서부터 ‘1주일에 여러 번’까지 6점 척도로 구성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팬덤활동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 팬덤활동 빈도의 Cronbach’s α 는 .759이었다.

2) 친구관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에서 친구관계 변인의 측정은 배성만·홍지영·현명호(2015)의 ‘또래관계의 질 척도’ 13문항을 사용하였다. Likert 4점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문항을 예로 들 수 있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청소년 친구관계의 Cronbach’s α 값은 .808로 확인되었다.

3) 삶의 만족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에서 삶의 만족도는 Diener 등(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변안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에 해당하는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고, 5문항으로 구성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문항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청소년 삶의 만족도의 Cronbach’s α 는 .771 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8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을 대상으로 설계하여

조사한 패널자료이다. 표본은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에 따라 추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의 6차년도(2023년) 중학교 3학년 자료 중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가 있다”고 응답한 90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6.0과 AMO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먼저 SPSS 26.0을 사용하여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인과 측정지표의 기술통계 및 분포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주요 변인의 신뢰도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후 AMOS 26.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설정된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였다. 최대우도법 적용에 앞서 주요 변인과 측정지표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여 일변량 정규성을 검토하였으며, 왜도의 절댓값이 3 미만, 첨도의 절댓값이 10 미만인 경우 심각한 비정규성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6). 또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검증하여 표본분포의 비정규성 가능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χ^2 , CFI, RMSEA, SRMR 등의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CFI는 .95 이상, RMSEA는 .06 이하, SRMR은 .08 이하를 양호한 적합도의 참고기준으로 삼았다(Hu & Bentler, 1999).

또한 성별에 따른 구조경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multiple-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분석에 앞서 동일한 요인구조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형태동일성과 측정단위동일성을 순차적으로 검증하여 성별 집단 간 측정모형의 동일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측정단위동일성 모형을 기준으로 각 구조경로의 비표준화 계수를 성별 집단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 간 χ^2 차이검정을 통해 경로계수의 성차를 검증하였다(Kline, 2016).

간접효과와 성별 간 간접효과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5,000회를 통해 검증하였다. 편향보정(bias-corrected)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간접효과 또는 간접효과의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Shrout & Bolger, 2002).

IV. 연구결과

1. 기초분석

본 연구에서는 팬덤활동, 친구관계 및 삶의 만족도를 각각 세 개의 측정지표로 구성하기 위해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적용하였다. 문항묶음은 여러 개의 원문항을 평균 또는 합산하여 소수의 지표로 구성하는 방법으로, 측정모형을 간명하게 설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이지현·김수영, 2016; 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본 연구는 새로운 척도 개발보다는 구성개념 간 구조경로와 매개효과 검증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각 잠재변인을 세 개의 문항꾸러미로 구성하였다. 문항묶음 전 각 척도의 원문항 수준에서 KMO 표본적합도 지수, Bartlett 구형성 검정, 첫 요인의 설명분산 비율 및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KMO 값은 .645 ~ .872, 첫 요인의 설명분산 비율은 47.65 ~ 60.42%, 요인부하량은 .416 ~ .781로 나타났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모두 유의하였다($p < .001$). 일부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50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문항묶음으로 구성된 측정모형에서 각 잠재변인의 평균분산추출량(AVE)이 .50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각 척도의 하위영역과 원척도의 내용 대표성을 고려하여 해당 문항을 삭제하지 않고 문항묶음에 포함하였다. 문항묶음 전략은 각 척도의 요인구조와 문항 내용영역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팬덤활동과 친구관계는 문항 내용상 하위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영역대표 묶기를 적용하였으며, 팬덤활동은 온라인/오프라인 활동 문항이, 친구관계는 긍정/부정 관계 문항이 각 문항꾸러미에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단일요인 구조로 확인되어 무작위 묶기를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팬덤활동, 친구관계 및 삶의 만족도는 각각 세 개의 측정지표로 구성되었으며, 각 측정지표의 점수는 포함된 문항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구체적인 측정지표의 구성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잠재변인별 측정지표 구성 결과

잠재변인	원문항수	측정방법	문항구러미 명칭	포함 문항	비고
팬덤활동	9	영역대표 측기	팬덤활동D_P1	팬덤활동 9, 5, 6	온라인 / 오프라인 활동을 포함한 다차원 구조 고려.
			팬덤활동D_P2	팬덤활동 8, 1, 4	
			팬덤활동D_P3	팬덤활동 3, 2, 7	
친구관계	13	영역대표 측기	친구관계D_P1	친구관계 11, 7, 6, 4	긍정관계 / 부정관계를 포함한 다차원 구조 고려.
			친구관계D_P2	친구관계 12, 13, 5, 8, 3	
			친구관계D_P3	친구관계 9, 10, 2, 1	
삶의 만족도	5	무작위 측기	삶의만족도_P1	삶의만족도 5, 3	단일차원 구조로 판단
			삶의만족도_P2	삶의만족도 4, 2	
			삶의만족도_P3	삶의만족도 1	

주. 팬덤활동과 친구관계는 하위영역의 내용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역대표 측기를 적용하였으며, 삶의 만족도는 단일차원 척도로 확인되어 무작위 측기를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를 확인하고, 팬덤활동, 친구관계,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 팬덤활동과 친구관계의 평균은 여학생(각각 1.76점, 3.12점)이 남학생(각각 1.42점, 3.0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삶의 만족도 평균은 남학생(2.72점)이 여학생(2.68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팬덤활동은 친구관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 = .17, p < .001$), 삶의 만족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15, p < .001$). 또한 친구관계는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15, p < .001$). 주요 변인과 측정지표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남학생 팬덤활동의 왜도와 첨도가 각각 2.04와 6.50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에 있어 심각한 비정규성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6).

<표 3>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 = 902)

	1	2	3
1. 팬덤활동	—		
2. 친구관계	.17***	—	
3. 삶의 만족도	-.15***	.15***	—
M 남	1.42	3.03	2.72
SD 남	.46	.36	.48
M 여	1.76	3.12	2.68
SD 여	.75	.38	.50

왜도 남	2.04	-.31	-.15
왜도 여	1.43	.31	-.15
첨도 남	6.50	1.47	1.29
첨도 여	1.99	-.35	.67

p < .001.

2. 측정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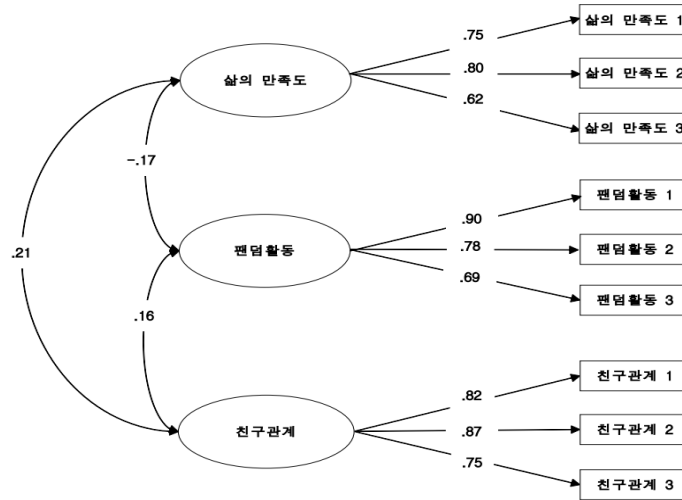
팬덤활동, 친구관계,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묶음 지표들이 각 잠재변인을 적절히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 = 85.631(df = 24, p < .001)$, $\chi^2/df = 3.57$, CFI = .98, RMSEA = .05(90% CI = [.04, .07]), SRMR = .04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표 4>).

<표 4> 측정모형의 적합도 (N = 902)

χ^2	df	χ^2/df	CFI	RMSEA (90% CI)	SRMR
85.631***	24	3.57	.98	.05 [.04, .07]	.04

p < .001.

또한 각 문항묶음 지표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beta = .62 \sim .90$ 으로 모두 .50이상이며 유의하였다(Hair, Black, Babin, & Anderson, 2010). 각 잠재변인의 개념신뢰도(CR)는 .77 ~ .85, 평균분산추출량(AVE)은 .53 ~ .66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또한 각 잠재변인의 AVE가 최대공유분산(MSV)보다 크고, AVE의 제곱근이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의 절댓값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Fornell & Larcker, 1981). 이에 따라 문항묶음으로 구성된 측정지표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2]).



- 주 1) 오차항은 생략하였음.
 2)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된 추정치임.
 3) 모든 계수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 $p < .001$.

[그림 2]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

3. 구조모형 분석

1) 전체 표본의 팬덤활동, 친구관계 및 삶의 만족도 간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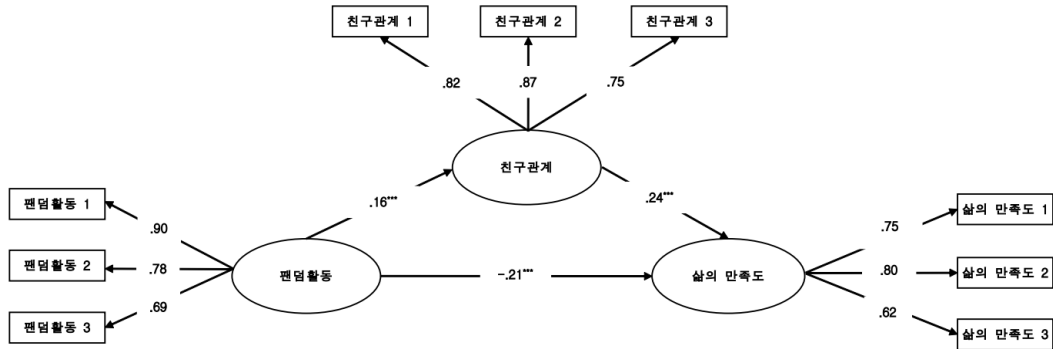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의 팬덤활동, 친구관계 및 삶의 만족도 간 구조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실시하였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모델 분석 결과, $\chi^2 = 85.631(df = 24, p < .001)$, $\chi^2/df = 3.57$, CFI = .98, RMSEA = .05(90% CI = [.04, .07]), SRMR = .04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표 5>).

<표 5> 구조모형의 적합도 (N = 902)

χ^2	df	χ^2/df	CFI	RMSEA (90% CI)	SRMR
85.631***	24	3.57	.98	.05 [.04, .07]	.04

*** $p < .001$.

전체 표본의 팬덤활동, 친구관계,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경로는 [그림 3]과 같으며, 경로계수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주 1)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계수임.

2) 측정변인의 오차항은 생략하였음.

*** p < .001.

[그림 3] 전체 표본의 팬덤활동, 친구관계 및 삶의 만족도 간 구조경로

먼저, 전체 표본에서 팬덤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 직접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21, p < .001$). 팬덤활동에서 친구관계로 이어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 = .16, p < .001$), 친구관계에서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경로도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24, p < .001$). 즉 팬덤활동은 친구관계와 정적으로 관련되었으며, 친구관계는 삶의 만족도와 정적으로 관계되었다.

<표 6> 전체 표본의 팬덤활동, 친구관계 및 삶의 만족도 간 구조모형 경로계수 (N = 902)

변인 간의 경로	b	β	S.E.	C.R.
팬덤활동 → 삶의 만족도	-.14	-.21	.03	-5.17***
친구관계 → 삶의 만족도	.31	.24	.05	5.83***
팬덤활동 → 친구관계	.08	.16	.02	4.17***

*** p < .001.

다음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팬덤활동이 전체 청소년의 친구관계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매개경로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확인하였다(<표 7>). 분석 결과, 팬덤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 직접효과는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나($\beta = -.21$,

$p < .001$), 친구관계를 통한 간접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 = .025$, $\beta = .039$, 95% CI [.012, .045], $p < .001$). 이에 따라 총효과는 $\beta = -.17$ 로 나타났다.

<표 7> 전체 표본의 팬덤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 효과분해 및 간접효과 검증 (N = 902)

변수 간의 경로	직접효과 β	간접효과B	SE	간접효과 β	간접효과 95% CI	총효과
팬덤활동 → 친구관계 → 삶의 만족도	-.21***	.025	.008	.039***	[.012, .045]	-.17***

주) B = 비표준화 계수, SE = 표준오차, β = 표준화 계수, CI = 신뢰구간. 간접효과 B, SE 및 95% CI는 비표준화 계수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 5,000회 반복추출을 통해 편향보정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음.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임.

*** $p < .001$.

2)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의 팬덤활동, 친구관계 및 삶의 만족도 간 구조경로

성별 집단별 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남학생 집단에서 팬덤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 직접경로($\beta = -.10$, $p > .05$)와 팬덤활동이 친구관계로 이어지는 경로($\beta = -.11$, $p > .05$)는 모두 부적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친구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직접경로($\beta = .11$, $p > .05$)는 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팬덤활동이 친구관계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간접경로($\beta = -.01$, $p > .05$)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남학생 집단의 팬덤활동, 친구관계 및 삶의 만족도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N = 394)

변수 간의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팬덤활동 → 삶의 만족도	-.10	-.01	-.11
친구관계 → 삶의 만족도	.11		.11
팬덤활동 → 친구관계	-.11		-.11

주)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된 계수임

여학생 집단에서 팬덤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 직접경로는 부적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28$, $p < .001$). 또한, 친구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beta = .34$, $p < .001$), 팬덤활동이 친구관계에 이르는 경로($\beta = .23$, $p < .001$)는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팬덤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간접경로($\beta = .08, p < .001$)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9>).

<표 9> 여학생 집단의 팬덤활동, 친구관계 및 삶의 만족도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N = 508)

변수 간의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팬덤활동 → 삶의 만족도	-.28***	.08***	-.20***
친구관계 → 삶의 만족도	.34***		.34***
팬덤활동 → 친구관계	.23***		.23***

주)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된 계수임.

*** $p < .001$.

3) 다중집단분석

본 연구에서는 팬덤활동, 친구관계 및 삶의 만족도 간 구조경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성별 집단 간 구조경로를 비교하기에 앞서 측정동일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형태동일성 모형은 $\chi^2(48) = 106.678$, CFI = .980, RMSEA = .037, SRMR = .040으로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였다. 측정단위동일성 모형 역시 $\chi^2(54) = 119.830$, CFI = .978, RMSEA = .037, SRMR = .046으로 적합도가 양호하였으며, 형태동일성 모형과 비교한 CFI 변화량은 .002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성별 집단 간 구조경로 비교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측정동일성 모형을 기준으로 각 구조경로를 하나씩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 간 χ^2 차이검정을 통해 경로계수의 성차를 검토하였다(<표 10>). 분석 결과, 친구관계와 삶의 만족도 간 경로($\Delta\chi^2 = 7.58 [\Delta df = 1, p < .01]$), 팬덤활동과 친구관계 간 경로($\Delta\chi^2 = 12.62 [\Delta df = 1, p < .001]$)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친구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경로는 여학생 집단($\beta = .34, p < .001$)에서만 유의하였다. 또한 팬덤활동이 친구관계에 미치는 경로 역시 여학생 집단($\beta = .23, p < .001$)에서만 유의하였다. 반면 팬덤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경로의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10> 경로별 제약에 따른 χ^2 차이검정 (N = 902)

경로	$\Delta \chi^2$	Δdf	p
팬덤활동 → 삶의 만족도	.96	1	.33
친구관계 → 삶의 만족도	7.58	1	.006
팬덤활동 → 친구관계	12.62	1	< .001

** p < .01, *** p < .001.

추가적으로 팬덤활동이 친구관계를 거쳐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간접효과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표 11>). 분석결과, 남학생에서 팬덤활동이 친구관계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B = -.011, 95% CI [-.042, .002]), 여학생에서는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B = .045, 95% CI [.023, .078]). 또한 남녀 간 간접효과 차이도 유의하였으며($\Delta B = -.056$, 95% CI [-.096, -.028]), 이는 팬덤활동이 친구관계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간접효과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표 11> 성별에 따른 간접효과 차이 검정 (N = 902)

경로	남학생		여학생		ΔB	95% CI
	B	95% CI	B	95% CI		
팬덤활동 → 친구관계→ 삶의 만족도	-.011	[-.042, .002]	.045	[.023, .078]	-.056	[-.096, -.028]

주. B = 비표준화 계수, CI = 신뢰구간, ΔB = 남학생 간접효과 - 여학생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 5,000회 반복추출을 통해 편향보정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음.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KCYPS 2018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6차년도 자료 중 팬덤활동 문항에 응답한 중학교 3학년 청소년 902명을 대상으로 팬덤활동과 청소년 삶의 만족도 간 관계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친구관계의 매개역할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팬덤활동과 청소년 삶의 만족도 간 직접경로가 유의하였으며, 친구관계를 통한 간접경로 역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팬덤활동이 친구관계를 거쳐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는 성별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팬덤활동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직접경로는 부적인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팬덤활동과 청소년 삶의 만족도 간에 부적인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 연구들(고은경 외, 2019; 나재은, 2017; 박은양·유현희, 2022; 현지현, 2024)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또한, 팬덤활동과 청소년 삶의 만족도 간 긍정적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안은미 외, 2013)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김다희·최진아, 2017; 방성아, 2019)와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팬덤활동과 청소년 삶의 만족도 간 부적인 관련성은 팬덤활동 참여 빈도가 높은 것 자체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 이외의 다른 활동에 대한 몰입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으며(현지현, 2024), 본 연구대상인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학업 관련 부담이 높은 시기라는 점에서(이하늘·이주연, 2026) 팬덤활동 참여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험이 될 수 있으나, 활동 빈도가 높은 청소년의 경우 학업시간, 수면, 자기관리 및 학교생활적응 측면에서 부담이나 긴장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팬덤활동과 청소년 삶의 만족도 간 부적 직접경로는 일상적 과업 수행의 부담과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팬덤활동과 청소년 삶의 만족도의 관련성은 참여 빈도라는 양적 수준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활동 동기, 몰입 수준, 일상생활 조절 양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둘째, 팬덤활동과 청소년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팬덤활동은 친구관계와 정적인 관련을 보였으며 친구관계는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관련을 보였다. 이는 팬덤활동과 친구관계 간 유의한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들(강지우·하정희, 2025; 김유현·김유미, 2024; 안은미 외, 2013; 인효연·박현정, 2024)과 일치하며, 긍정적 친구관계가 삶의 만족도와 연관된다는 선행연구(곽자경·전효정, 2025; 김다희·최진아, 2017; Berndt, 2002)들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팬덤활동이 개인적인 취미에 그치지 않고,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또래 간에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사회적 성격을 지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강지우·하정희, 2025). 팬덤은 팬들의 집합체를 넘어 관심사와 감정을 공유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Abd-Rahim, 2019). 또한 팬덤활동에 포함되는 소속감, 상호작용, 결속력, 영향력 등의 특성은 집단 정체감이나 공동체 의식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조안나 외, 2016; 최미원 외, 2016), 이러한 경험은 친구관계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팬덤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 직접경로는 부적 방향으로 나타난 반면, 친구관계를 통한 간접경로는 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팬덤활동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 연결되는 방식이 단일하지 않으며, 팬덤활동의 의미가 참여 빈도 자체보다 그 활동이 어떤 관계적 경험으로 확장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팬덤활동 참여 빈도가 높은 경우 학업, 수면, 자기관리 등 일상적 과업과 긴장을 형성하여 삶의 만족도와 부정적으로 관련될 수 있으나, 팬덤활동이 친구관계 형성, 공통 관심사 공유, 정서적 지지와 소속감의 경험으로 이어질 경우 삶의 만족도와 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는 팬덤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가 부적, 비유의, 정적 관계로 다양하게 보고된 선행연구 결과(김다희·최진아, 2017; 나재은, 2017; 방성아, 2019; 한주상·신동윤, 2025; 현지현, 2024)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설명을 제공한다. 또한 본 연구와 동일한 변인은 아니지만, 팬 관심사를 공유하는 친구관계가 팬덤 동일시와 심리적 웰빙 간 관계를 매개한다고 보고한 연구(Reysen, Plante, Roberts, & Gerbasi, 2024)와도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팬덤활동의 삶의 만족도 관련성을 단일 방향으로 해석하기보다, 친구관계를 통한 관계적 경로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팬덤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친구관계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는 청소년의 팬십 정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매개역할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한주상·신동윤, 2025)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팬십과 팬덤활동의 개념 및 측정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팬십은 특정 대상에 대한 정서적 헌신과 팬으로서의 정체성을 포함하는 개인 내면의 심리적 측면인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팬덤활동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에 초점을 둔다. 이는 팬덤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이해할 때 참여 빈도와 같은 양적 수준뿐 아니라 친구관계를 통한 관계적 경험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셋째, 팬덤활동, 친구관계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는 성별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집단분석 결과, 팬덤활동에서 친구관계로 이어지는 경로와 친구관계에서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성별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팬덤활동에서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직접경로의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팬덤활동이 친구관계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여학생 집단에서만 유의하였으며, 남학생 집단에서는 주요 구조경로와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남학생과 여학생 간 간접효과

차이 또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표본에서 확인된 친구관계의 매개효과가 모든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보다는, 특히 여학생의 관계적 경험을 중심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목할 점은 팬덤활동에서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직접경로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팬덤활동이 친구관계로 연결되고 친구관계가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경로에서는 성별 차이가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성별 차이가 팬덤활동 자체와 삶의 만족도 간 관련성에서 나타났다고보다, 팬덤활동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이나 관계 형성으로 확장되고 그러한 친구관계가 삶의 만족도와 연결되는 과정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동일한 팬덤활동이라도 그것이 공통 관심사의 공유, 정서적 교류 및 지지와 같은 관계적 경험으로 연결되는 정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관련성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팬덤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나 정서적 지지를 직접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해석은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변인들의 구조적 모형과 유사한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성별에 따른 구조적 경로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팬덤활동의 성별 차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팬덤활동에 더 활발하게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김경미, 2020; 김민주·이은경, 2025; 안은미 외, 2013), 특히 여학생은 온라인 활동과 소셜미디어 기반 팬덤참여에서 더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주·이은경, 2025; 오현정 외, 2020). 이러한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여학생의 경우 팬덤활동이 친구관계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간접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팬덤활동이 또래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삶의 만족도와 연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 본 연구모형에서 팬덤활동, 친구관계 및 삶의 만족도 간 주요 구조경로와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팬덤활동과 친구관계를 통한 관계적 경로가 남학생의 팬덤활동 경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 남학생의 팬덤활동은 여학생과 다른 활동 유형과 표현 방식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안은미 외, 2013), 남학생은 연예인 우상화 대상을 관계 및 유대의 대상보다는 역할모델로 바라보는 경향이 높고(손경순, 2015), 우상에 대한 관심 표현에서도 지식과 정보수집을 중시하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다(김현주, 2002).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남학생의 팬덤활동은 정서적 교류나 친밀감 형성보다는 정보 탐색, 개인적 관심, 역할모델 설정 또는 공동 취미활동과 같은 방식으로 또래관계와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팬덤활동 유형, 참여 동기, 또래 상호작용 방식

및 팬덤활동이 또래관계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보다 세분화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 팬덤활동을 삶의 만족도와 연결하여 구조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들이 팬덤활동을 주로 문화적 현상, 여가활동, 심리적 몰입 등의 측면에서 다루어왔다면, 본 연구는 팬덤활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어떤 경로로 연결되는지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팬덤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친구관계의 매개역할을 확인하였다. 이는 팬덤활동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 직접적으로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관계라는 사회적 관계 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 팬덤활동과 삶의 만족도 간 직접경로는 부적으로 나타난 반면, 친구관계를 통한 간접경로는 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팬덤활동의 의미가 참여 빈도 자체보다 관계적 경험으로 확장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의 팬덤활동을 단순히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활동으로 평가하기보다,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균형 있는 일상생활을 함께 고려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청소년기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적 접근의 필요성과도 부합한다(허유림·최서윤, 2025).

셋째, 본 연구는 팬덤활동, 친구관계, 삶의 만족도 간 구조적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여학생 집단에서 팬덤활동이 친구관계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간접경로가 유의했다는 점은 청소년 팬덤활동을 이해할 때 성별에 따른 관계적 맥락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여학생의 경우 팬덤활동은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 본 연구모형에서 동일한 관계적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팬덤활동의 의미와 기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 팬덤활동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서 팬덤활동의 빈도나 참여 여부 자체보다 그 활동이 또래관계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팬덤활동은 종종 과몰입, 소비, 학업 방해 등 부정적 측면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본 연구는 팬덤활동이 친구관계와 연결될 경우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으로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학교와 가정에서는 청소년 팬덤활동을 제한할 대상으로 보기보다, 자기표현의 수단이자 또래관계 형성과 정서적 지지의 자원으로 이해하고, 긍정적인 관계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KCYPS 2018의 6차년도 자료를 사용한 분석으로 횡단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팬덤활동, 친구관계, 삶의 만족도 간의 인과적 방향성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팬덤활동, 친구관계 및 삶의 만족도 간 변화 양상과 시간적 선후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팬덤활동은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로 측정된 팬덤활동의 전반적 수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KCYPS 2018의 해당 자료에서는 팬덤활동 참여기간, 참여 동기, 대상 유형 및 활동의 질적 특성이 별도로 측정되지 않아, 이러한 개인적 요인을 통제하거나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팬덤활동의 빈도뿐 아니라 참여기간, 팬덤활동의 유형, 참여 동기, 몰입 수준 및 관계적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구조경로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나,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심리사회적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팬덤활동의 의미, 활동 방식, 또래 상호작용 양상, 팬덤활동 경험의 차이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KCYPS 2018의 문항 구조상 “특별히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있다”고 응답하여 팬덤활동 빈도 문항에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좋아하는 대상이 없거나 팬덤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에게까지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지우·하정희(2025). 청소년의 팬덤활동과 또래관계의 질에 따른 공동체의식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 **한국청소년연구**, 36(3), 61-81. <https://doi.org/10.14816/sky.2025.36.3.61>
- 강지현·노혜경(2019). 아이돌 팬 특권의식의 성차: 팬십, 관계 만족도, 관계유지의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4(1), 5-38.
- 고은경·전효정·엄성혜·이난희·김동진(2019). 성향점수매칭을 활용한 청소년 체험활동에 따른 삶의 만족도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9), 733-757.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9.733>
- 공정석(2011). 부모 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우울감의 매개효과와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자경·전효정(2025).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아존중감, 친구관계,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 **인지발달장애학회지**, 16(4), 83-102. <http://dx.doi.org/10.21197/JCEL16.4.5>
- 김경미(2020). 참여하는 청소년은 행복한가? 사회참여 활동유형과 성별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46(1), 141-164. <http://dx.doi.org/10.15820/khjss.2020.46.1.006>
- 김고운·김정운·박정열(2009). 팬덤 속 여가 즐기: 1인 미디어 운영자들의 팬활동을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6(3), 85-116.
- 김다희·최진아(2017).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또래관계의 질, 팬덤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지**, 8, 25-44.
- 김민주·이은경(2025). 청소년의 팬덤활동 유형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와 예측요인 분석. **인지발달장애학회지**, 16(3), 137-160. <http://dx.doi.org/10.21197/JCEL16.3.8>
- 김용석(2011). 팬클럽에서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에 관한 연구. **시민청소년학연구**, 2(1), 101-142.
- 김유현·김유미(2024). 청소년의 긍정적 친구관계와 학습몰입: 학업무기력의 매개효과와 팬덤활동의 조절된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22), 103-116. <https://doi.org/10.22251/jlcci.2024.24.22.103>
- 김인경·곽금주·양진영(1998). 오빠부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인간발달연구**, 5(2), 1-17.
- 김정연·정현주(2008).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13, 171-190.
- 김현주(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이상화 간의 관계: 교우관계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매개변수로. **청소년학연구**, 9(1), 115-139.
- 나재은(2017). 초기청소년의 팬덤활동이 삶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8), 396-405. <https://doi.org/10.5392/JKCA.2017.17.08.396>
- 문민경(202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부모교육연구**, 22(3), 263-288. <https://doi.org/10.61400/JPE.2025.22.3.263>
- 박병선·배성우·박경진·서미경·김혜지(2017). 청소년의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생활적응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보건사회연구**, 37(2), 72-101.

- 박은양·유현희(2022). 청소년의 팬덤활동과 협동심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그릿,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4(12), 857-870. <https://doi.org/10.33645/cnc.2022.12.44.12.857>
- 박지현·김대원(2019).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심리적·사회 환경적 요인의 효과. **상담심리교육복지**, 6(2), 105-126. <https://doi.org/10.20496/cpew.2019.6.2.105>
- 방성아(2019). 휴대폰 의존도와 팬덤활동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매개효과.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4(11), 255-262. <https://doi.org/10.9708/jkcci.2019.24.11.255>
- 배성만·홍지영·현명호(2015).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5), 325-344.
- 부경희·이우리(2023). 플로우와 행복: 방탄소년단 팬덤 ARMY의 자발적 친사회적 행동의 주요 동인. **Korea Business Review**, 27, 77-92. <https://doi.org/10.17287/kbr.2023.27.0.77>
- 서선숙·백진아(2020).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6(4), 497-512. <https://doi.org/10.24159/joec.2020.26.4.497>
- 손경순(2015). 청소년 성별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와 연예인 이상화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수경·이현정·홍세희(2017). 학교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할합수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8(3), 57-88.
- 안은미·김소희·전선율·전성미·정익중(2012). 팬덤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8(2), 421-446.
- 안은미·김지선·전선율·정익중(2013). 팬덤활동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 차이. **한국청소년연구**, 24(2), 149-175.
- 오윤선·황인숙(2016). **청소년문화론**. 서울: 양서원.
- 오현정·장유나·홍세희(2020).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이용한 청소년의 팬덤 활동 유형 분류 및 학업태도의 차이. **교육연구논총**, 41(4), 91-116. <http://dx.doi.org/10.18612/cnues.2020.41.4.91>
- 우채영·박아청·정현희(2010). 성별 및 학교 급별에 따른 청소년의 인간관계, 스트레스,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교육심리학회**, 24(1), 19-38.
- 이은지·유지혜(2020). 중·고등학교 전환기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학교적응, 삶의 만족도 간 종단적 인과관계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0), 555 - 575.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10.555>
- 이정민·정혜원(2018). 청소년 팬덤활동 참여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변화연구: 경향점수 매칭과 다층성장모형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9(2), 35-67. <https://dx.doi.org/10.14816/sky.2018.29.2.35>
- 이지수·안현선(2021). 팬덤활동 참여는 학업을 방해할까?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8(12), 245-269. <https://doi.org/10.21509/KJYS.2021.12.28.12.245>
- 이지현·김수영(2016). 문항묵음: 원리의 이해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27-353.
- 이하늘·이주연(2026). 중학생의 학업 스트레스가 전반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와 신체활동의 조절된 매개효과. **부모교육연구**, 23(2), 113-135. <https://doi.org/10.61400/JPE.2026.23.2.113>
- 인효연·박현정(2024).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예측요인으로서 팬덤활동, 스마트폰 의존, 부모양육태도:

- 코로나19 발생 전후 중학교 1학년 학생 비교.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4), 809-827.
<https://doi.org/10.22251/jlcci.2024.24.4.809>
- 정현주(2017). 청소년 팬덤활동에 관한 연구: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40, 109-133.
- 조안나·이은경·장미경(2016). 중학생의 팬덤활동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인문학논총**, 40, 201-226. <https://doi.org/10.21582/TJH.2016.02.40.201>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2024). **2024 아동행복지수 생활시간조사 결과**. 서울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최미원·조현희·김영아(2016).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팬덤활동, 공동체 의식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4(9), 349-358. <http://dx.doi.org/10.14400/JDC.2016.14.9.349>
- 한주상·신동윤(2025). 청소년의 팬업 정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9(4), 1140-1150. <https://doi.org/10.33097/JNCTA.2025.09.4.1140>
- 허유림·최서운(2025). 한국형 사회정서교육기반 청소년기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부모교육연구**, 22(3), 79-111. <https://doi.org/10.61400/JPE.2025.22.3.79>
- 현지현(2024). 고등학생의 팬덤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업성취 만족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인간과학연구**, 1(2), 25-39.
- Abd-Rahim, A.(2019). Online fandom: Social identity and social hierarchy of Hallyu fans. *Journal for Undergraduate Ethnography*, 9(1), 65-81. <https://doi.org/10.15273/jue.v9i1.8885>
- Arizabal, J. J. R., & Yabut, H. J.(2025).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onnected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Pop fandom identity and mental health. *SAGE Open*, 2025(7), 1-15. <https://doi.org/10.1177/21582440251369989>
- Berndt, T. J.(2002). Friendship quality and social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1(1), 7-10. <https://doi.org/10.1111/1467-8721.00157>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4901_13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 - 302.
<https://doi.org/10.1037/0033-2909.125.2.276>
- Fornell, C., & Larcker, D. F.(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Pearson Education.
- Hu, L. T., & Bentler, P. M.(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 1-55.
- Kline, R. B.(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https://doi.org/10.1207/S15328007SEM0902_1
- OECD(2023). PISA 2022 Results: Factsheets - Korea.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3/11/pisa-2022-results-volume-i-and-ii-country-notes_2fca04b9/korea_a9400339/4e0cc43a-en.pdf
- Reysen, S., Plante, C. N., Roberts, S. E., & Gerbasi, K.(2024). Social activities mediate the relation between fandom identific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Leisure Sciences*, 46(5), 681 - 701. <https://doi.org/10.1080/01490400.2021.2023714>
- Ry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https://doi.org/10.1037/0022-3514.57.6.1069>
- Shrout, P. E., & Bolger, N.(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https://doi.org/10.1037/1082-989X.7.4.422>

Abstract

The Effect of Fandom Activities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Peer Relationships

Ahn, Jeeyoung* · Kim, Jishin** · Kim, Gahyeon***

This study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peer relationships on the association between fandom activities and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and tests gender differences in this structural relationship. Data were drawn from the 6th wave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and included 902 third-year middle school students.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SPSS 26.0 and AMOS 26.0. Bootstrapping was use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and multiple-group analysis examined gender differences in structural path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irect path from fandom activities to life satisfaction was significant and negative. Second, the indirect path from fandom activities to life satisfaction through peer relationships was significant and positive. Third, the direct path did not differ by gender, whereas the two paths involving peer relationships differed significantly by gender. The mediating effect was significant only among girl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eer relationships and gender differences should be considered in understanding the link between adolescents' fandom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Keywords: fandom activities, life satisfaction, peer relationships, mediating effect

* Associate Professor, Korea Cyber University

** Adjunct Professor, Duksung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and Industry

*** Master's degree,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